

드러머 필리조존스의 업템포 솔로연주에 관한연구 - 곡 ‘Two Bass Hit’를 중심으로’

김윤태,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yuntaedrum@gmail.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Drummer Philly Joe Jones’Uptempo Solo Performance - Two Bass Hit -

Yun-Tae Kim,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재즈 드러머 필리 조 존스의 업템포 솔로시 사용되어진 프레이즈나 리듬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곡은 마일즈 데이비스의 명반 ‘Milestone’ 에 수록되어진 곡으로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함께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업템포에서 발생할수 있는 업비트, 다운비트, 그리고 각 비트의 하위분류인 롱사운드, 숏사운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각 비트 사이에서 그가 선택한 프레이즈들을 분석해보고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클래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인지와 경험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사운드를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1. 서론

곡의 템포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가령 슬로우 템포 일때와 미디엄 템포일 때 쓰이는 비트의 종류가 달라질수도 있다. 그리고 달라진 비트의 수에 더해서 선택되어지는 프레이즈나 느낌을 다르게 구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본 곡 ‘Two Bass Hit’에서는 업템포에서의 프레이즈와 비트의 쓰임새를 살펴 보려고 한다. 그와 더불어 비트에는 다운비트 업비트가 있다. 그리고 업비트에는 숏사운드와 롱사운드가 있고 다운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숏사운드와 롱사운드를 만들어 낼수 있다. 이곡에서 필리 조 존스가 브라스 유니즌 섹션의 업비트와 다운비트 사이에서 어떻게 셋업을 해 나가는지 알아 보겠다. 또한 3연음과 8분음표가 업템포에서 다양한 비트들과 함께 구사되어지는 프레이즈도 살펴 볼 것이다.

본 곡은 1958년 제작된 마일즈 데이비스의 앨범 ‘Milestone’ 의 수록곡이다. 이 앨범은 마일스의 첫 번째 ‘Great Quintet’ 이라 불리는 멤버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재즈 역사상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이기도 하다. 피아노에 레드 갈란드, 베이스에 폴 챔버스, 드럼에 필리 조 존스의 피아노 트리오에 엘토섹소폰에 케논볼 어들리, 테너 섹소폰에 존 콜트레인이 참여를 하고 있다.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한 명곡을 분석한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필리의 업템포 연주가 음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현재 연주자들에게 클래식을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자신만의 사운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

2. 본론

[그림 1] 업템포 업비트 3연음



그림1 에서도 볼 수 있듯이 3연음 스네어드럼 연주와 8분음표 스네어드럼에서 베이스드럼으로 이어져가는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솔로 프레이즈가 깔끔하게 떨어

지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4번째 마디에서 나오는 드래그(Drag)와 림샷(Rim Shot)을 연주함으로써 솔로의 정교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어서 나오는 4번째 박자에서의 4분 쉼표는 다음 마디에 나오는 브라스 섹션 부분을 더 부각시킨다. 그 이유로는 5번째 마디에 나오는 브라스 섹션 파트가 첫 박에서 8분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전 마디에서의 필리 죠 존스가 쉼표를 사용함으로써 이후에 나오는 브라스 섹션이 리듬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림1의 5번째 6번째 마디는 그의 음악적인 센스가 돋보이는 지점이다. 악보상 처음 4마디 동안 연주되어지는 부분과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인트로 처음 4마디 동안은 브라스와 드럼솔로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5번째 마디부터는 브라스 파트와의 유니즌 방식으로 리듬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분명 드러머가 솔로나 필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쉼표를 선택한 이유는 앞의 4마디와 비교되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즉흥연주의 한 형식인 대비를 사용해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1에서 5번째 마디의 4번째 박자에 나오는 스네어드럼, 베이스드럼, 원발 풋하이햇을 같은 비트에 동시에 연주하게 되는데 이것또한 드러머의 센스가 돋보이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하이햇은 손으로 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손이 아닌 원발을 사용함으로써 3가지 악기의 밸런스를 적절히 유지하며 이치럼 세련된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5번째 6번째 마디에서 쉼표를 이용해 공간을 많이 두는 연주를 한 후에 바로 7,8번째 마디에서 쉼표 없이 마디를 가득 채워서 연주함으로써 다시 대비의 효과를 나타내며 사운드의 반전을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 7,8번째 마디에서 그는 특유의 스네어드럼과 스네어림샷 사운드를 적절히 섞어서 연주하고 있다. 이런 음악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리듬을 드라이빙하는 느낌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업템포 다운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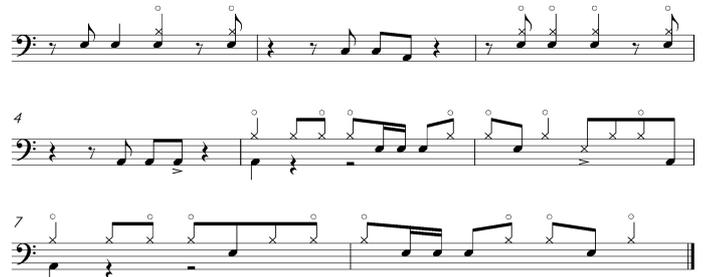


그림2에서도 브라스 섹션 리듬을 연주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림1에서 나왔던 브라스 섹션 파트의 Variation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브라스 섹션과 드럼과의 묻고 답하는 방식의 연주가 전개된다. 4마디 동안 두 파트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브라스의 답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네어드럼과 베이스드럼의 컴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반면 두 번째 답하는 부분에서는 베이스드럼만을 이용해 앞의 연주와 같은 리듬을 그대로 옮겨왔다. 이 부분에서 베이스드럼만으로 연주되어진 사운드는 곡의 빠른 템포 특성상 시도하기 힘든 테크닉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만큼 그의 음악적인 도전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그림 3] 업템포 하이햇 연주에서



그림3의 첫 4마디 부분은 필리의 하이햇 연주에서 이루어지는 스윙 연주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오른손 하이햇의 오픈 클로즈 사운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베이스드럼의 액센트를 사용하여 브라스 섹션의 리듬과 함께 유니즌으로 연주하고 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빠른 템포임에도 불구하고 스네어드럼으로 반박 3연음 리듬을 활용하여 컴핑을 구사함으로써 드럼 솔로 부분을 반주의 느낌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해나가며 곡의 완급을 조절해 나가고 있다.

이어서 등장하는 5번째 마디에서 부터는 다시 인트로 부분의 브라스 섹션리듬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의 솔로 부분은 특히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드럼 연주자들의 경우 이런 강한 느낌의 브라스

사운드에는 크래쉬 심벌이나 스네어드럼 등을 사용하여 강한 액센트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7,8번째 마디를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필리는 2박3연음을 이용한 프레이즈를 구사하게 된다. 스네어드럼에서 림샷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스네어드럼에서 플로어탐으로 이동하며 리듬을 만들어 나간다. 곡은 처음부터 계속 빠른 템포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연주하다가 이 부분에서 2박3연음으로 변화를 주어 솔로나 곡 전체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es-s](#) olo-book-philly-joe-book

[3] 마일스 데이비스 자서전. 집사재. 201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빠른 업템포 스타일의 곡에서 솔로 연주를 할 때 음악적으로 표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어느 악기던지 빠른 업템포 스타일의 곡에서 솔로 연주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본 곡과 같이 중간에 브라스 섹션 사이에 드럼솔로가 채워지는 경우는 더 쉽지 않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필리 조 존스의 균형잡힌 프레이즈와 흔들림 없는 리듬의 다양한 시도와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수 있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전이라 부르고 명반이라 칭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더 복잡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고 찾고 있다. 그러면서 옛날 클래식 중요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 클래식을 공부하고 답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힘든 것이다. 설령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길지 않은 경우 또한 많이 보아왔다. 명반이나 명곡의 대열에 포함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내재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를 통해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1] Miles Davis. Milestone. Columbia Record. 1958
 [2] <https://memphisdrumshop.com/the-philly-joe-jon>